

KIPEC 이슈 브리프

2025년 7월 7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발표

KIPEC 이슈 브리프는 워싱턴 D.C.에서 발생하는 주요 현안에 대한 간략한 분석 보고서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보고서를 발행하며, 본 시리즈는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7월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앞으로 보낸 서한의 스크린샷을 공유했습니다. 해당 서한의 내용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오는 8월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조치는 철강이나 알루미늄 등 특정 품목에 이미 부과 중인 부문별 관세와는 별도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튀니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등 여러 국가 정상에게 보낸 추가 서한 12건을 잇따라 게시했습니다. 해당 서한에는 이들 국가에 대해 최대 4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통보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한국 수출 산업에 반가운 소식은 아니지만, 이번 조치가 한국만을 겨냥한 강경한 무역정책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독특한 대문자 사용과 문법이 그대로 반영된 14통의 서한은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되었으며,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서한이 추가로 발송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오스와 미얀마 등 다른 국가들은 더 높은 관세율에 직면해 있으며, 최대 40%의 관세부과가 예고된 상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번 서한에는 한미 안보 동맹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지 거의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그는 첫 임기에서 종종 드러냈던 한국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다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트럼프 행정부가 안보 관계를 무역협상에서 지렛대로 삼아 양보를 요구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전개 방향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 시행 예정인 관세 조치에 대해 “확고하긴 하지만 100%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서한의 내용에도 “양국 관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상황에 따라 변화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49%에 달하는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 부과 계획을 처음 발표했을 때, 금융시장(특히, 채권 시장)이 급격히 하락하자 행정부는 해당 방침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발표 이후에도 주식 시장은 약 1% 하락했으며, 미국 국채가격은 이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백악관이 다시 한번 보다 온건한 접근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 관세 발표 이후 일부 언론에서 ‘TACO 무역’(Trump Always Chickens Out, 트럼프는 항상 물러선다)이라는 조롱성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이 이에 격분했다는 보도도 있어 이번에는 일부 관세라도 실제로 시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는 화요일에 구리 수입품에 대해 50% 관세를 발표했으며,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의약품에 대해 최대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고율 관세가 여전히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